

# 가업상속 악용 '꼼수 베이커리·주차장' 손본다

## 재경부·국세청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선방안' 보고

### 제조 안하는 음식업 적용 고령부모 명의등록 배제 경영기간·사후관리 강화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 카페 2곳 중 1곳  
필로 가업상속공제 남용 소지가 있는 것으  
로 정부 실태조사에서 확인됐다.

정부는 실제 빵을 굽지 않는 베이커리나  
주차장업 등을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에  
서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은 6일 국무회의에  
서 이런 내용의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현  
장 실태 및 문제점', '가업상속공제 제도개  
선 방안'을 보고했다.

국세청이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 카페  
25개 업체를 선별해 실태 조사한 결과  
44%인 11개 업체에서 가업상속공제 남용

소지가 발견됐다.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사망자)이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업종 상속  
인이 승계한 경우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  
재산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공제 한도는 가업 영위 기간이 10년 이  
상이면 300억원, 20년 이상은 400억원, 30  
년 이상은 600억원이다. 이들 업체 가운데  
제과점점으로 사업자 등록했으나 실질적  
으로 커피전문점으로 운영하는 업체가 7개  
확인됐다. 제과점업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이나, 커피전문점은 공제받을 수 없다.

일부 업체는 완제품 빵을 구입·판매하

고 제빵시설이 없는 곳도 있었다.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을 사업장에 포  
함해 등록한 4개 업체도 확인됐다.  
최대한 공제를 받기 위해 주택 등 사적  
공간도 사업장에 포함하는 식이다.

실제로는 자녀가 운영하면서 고령의 부  
모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업체도 4개  
포함됐다. 부모가 가업을 최소 10년 이상  
경영해야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점  
을 노린 것이다.

특히 주차장업은 설치도 비교적 간단하  
고 설치 이후 단순 유지 관리만으로 운영  
할 수 있어 부동산 승계 수단으로 이용할

우려가 있다고 정부는 판단했다.  
이에 세제 개편을 담당하는 재정경제부  
는 1997년 제도 도입 후 30년이 되는 만큼  
제도 전반을 재설계해 문제점을 개선하겠  
다고 밝혔다.

우선 가업상속공제 지원 취지에 맞지 않  
는 업종은 적용 배제를 추진한다.  
기술·노하우 이전을 지원하는 제도 취  
지, 업종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지원 타  
당성이 낮은 주차장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현장 실태점검과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  
쳐 구체적인 조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  
다. 또 베이커리 카페 등 음식점업 중에서  
실제 제조하지 않는 음식점업은 공제를 제  
외할 방침이다. 토지를 이용한 과도한 공  
제를 방지하기 위해 공제가 적용되는 토지  
범위를 축소하고, 면적(3.3㎡)당 공제 한  
도 금액을 설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출액 비(非) 공제 대상 업종  
인 경우 매출액·자산 사용 비율 등 기준으로  
안분해 주업종에 해당하는 자산에만 공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현재 최소 경영 기간인 10년은 상황 조정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사후관리기간인 현  
행 5년도 높이기로 했다. 연합뉴스



전남도산림연구원은 최근 ㈜아로마티카와 업무협약을 맺고, 전남 난대 산림자원에서 추출한 에센셜오일을 활용한 화장품 개발과 산업화를 추진한다.

## 전남 산림자원, 수입화장품 원료 대체 시동

### 아로마티카와 협약...에센셜오일 기반 K-뷰티 산업화 추진 생달나무 등 난대자원 활용...원료 국산화·공급망 내재화

전남 산림자원을 활용한 화장품 원료  
국산화가 본격화된다. 수입 의존도가  
높은 향장 원료를 지역 산림자원으로 대  
체해 K-뷰티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  
겠다는 구상이다.

전남도산림연구원은 최근 ㈜아로마  
티카와 업무협약을 맺고, 전남 난대 산  
림자원에서 추출한 에센셜오일을 활용  
한 화장품 개발과 산업화를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세계 화장품 시장은 연평균 5~6% 성  
장세를 이어가며 2030년 약 800조원 규  
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역  
시 2025년 기준 약 11조원 수출을 기록  
하며 성장 흐름을 유지하고 있지만, 주  
요 원료 상당 부분을 해외에 의존하는  
구조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전남은 다양한 산림

수종과 향장용 자원을 기반으로 원료 확  
보와 산업화에 유리한 조건을 갖춘 지역  
으로 평가된다.

특히 난대성 식물 자원이 풍부해 고부  
가가치 천연소재 개발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협약에 참여한 아로마티카는 아로마  
테라피 기반 화장품 브랜드로, 에센셜  
오일 중심 제품을 34개국 이상에 공급  
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연평균 47%의  
매출 성장세를 기록하며 글로벌 시장 확  
대를 이어가고 있다.

양측은 완도 등 남부 해안지역에 자생  
하는 생달나무를 비롯한 산림자원을 활

용해 향장 소재 연구와 제품 개발을 공  
동 추진한다. 원료 발굴부터 제품화, 시  
장 적용까지 이어지는 협력체계를 구축  
해 산림바이오 소재의 상용화를 앞당긴  
다는 계획이다.

주요 협력 분야는 국산 산림원료 기반  
제품 개발, 천연오일 화장품 적용 연구,  
원료 대량생산과 단가 안정화, 신규 산  
림자원 발굴 등이다. 단순 연구를 넘어  
산업 적용까지 연결하는 구조를 마련하  
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오득실 전남도산림연구원장은 "전남  
산림자원과 기업의 기술력이 결합해 아  
로마테라피 산업 기반을 구축하는 계기  
가 될 것"이라며 "수입 의존도가 높은  
화장품 원료를 국산 소재로 전환해 산업  
경쟁력을 높여겠다"고 밝혔다.

박정열 기자 houbul@gwangnam.co.kr

## 전남농기원, 창농기업 스케일업 본격화

### 14개 기관 협약...청년농 창업기업 성장 체계 구축

전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행란)이 청  
년농업인의 창업기업 육성과 성장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전남도농업기술원은 6일 유망 창농기업  
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창농기업  
스케일업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전남도농업기술원을  
비롯해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 총 14개  
기관이 참여했다.

협약에는 '청년농업인 창업 스케일업  
지원사업' 대상기업인 화순 '산들넝', 해  
남 '황금발영농조합법인', 무안 '아파달  
다' 등 3개 창농기업이 포함됐다. 여기에  
(사)전남벤처포럼, ㈜아이디어파트너스,

㈜이엔티노베이션, (유)글로벌경영아  
카데미, ㈜디엔특허법률사무소, 양호석공  
인회계사무소, 주재영 전문개인투자자 등  
민간 전문기관이 함께 참여해 기업 성장  
전반을 지원한다.

전남도농업기술원은 농업을 단순 생산 중  
심에서 벗어나 창업 산업으로 확장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청년농업인을 기업가  
로 육성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참여 기업에는 경영,  
기술, 투자, 특허 등 분야별 맞춤형 컨설  
팅이 제공되며, 초기 시장 진입과 성장 단  
계 전반에 걸친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김해군 중흥토건 대표이사와 이경호 중흥건설 대표이사는 최근 전주예코시티 17블록과 선월하이파크 택지조성공사 현장을 차례로 방문해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 중흥그룹, 순천 선월 등 택지조성공사 점검

### 김해군·이경호 대표이사 현장 방문... '재해예방·품질 최우선'

중흥그룹은 안전보건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경영진이 직접 참여하는 현장 점검  
을 진행했다.

김해군 중흥토건 대표이사와 이경호 중  
흥건설 대표이사는 최근 전주예코시티  
17블록과 선월하이파크 택지조성공사 현  
장을 차례로 방문해 안전관리 실태를 집  
중 점검했다.

이번 점검에는 기술부, 안전부, 미래전  
략팀 등 주요 부서장들이 함께 참여해 안  
전보건 관리체계 운영 현황을 종합적으로

확인했다. 특히 안전보건 관리체계 운영  
및 안전수칙 준수 실태, 작업환경 개선 여  
부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개선이 필요하  
는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조치를 지시하  
는 등 실효성 있는 점검이 이뤄졌다.

점검 이후에는 현장 임직원들과 간담회  
를 열고 예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질의  
응답을 통해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경영  
진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소  
람팀 등 주요 부서장들이 함께 참여해 안  
전보건 관리체계 운영 현황을 종합적으로  
통을 강조했다. 정현아 기자 aura@



농협 광주본부부는 최근 광주지역 농협 판매업무 담당자와 광주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도농상생 금융직거래장터' 개장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열었다.

## 농협 광주본부, '금융직거래장터' 17일 개장

### 11월까지 총 24회 운영

농협 광주본부부가 지역 농산물 소비 촉  
진과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한 직  
거래 장터를 본격 가동한다.

농협 광주본부부는 최근 광주지역 농협  
판매업무 담당자와 광주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도농상생 금융직  
거래장터' 개장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열  
고, 오는 17일 본부 주차장에서 개장식을  
개최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올해 금융장터는 총 24회에 걸쳐 운영  
될 예정이다. 4월 중순부터 11월 중순까

지 매주 금요일마다 열리며, 휴식기인 7~  
8월은 제외된다. 장터에서는 산지에서 직  
송된 신선한 농특산물을 시중가보다 20~  
30%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특히 소비 트렌드에 맞춘 테마형 장터  
운영도 눈길을 끈다. 5월 나들이 간식전,  
6월 초여름 과일전, 7월 보양식 재료전, 9  
월 추석 특별전, 11월 김장 대전 등 계  
절과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기획 행사가  
마련된다.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와 운영을 비롯해  
행운의 톨렛 이벤트, 인절미 키팅 및 나눔  
행사 등 다양한 개장 기념 프로그램도 함  
께 진행된다. 이송홍 기자 photo25@

## 전남 주택구입부담지수 전국 최저

### 작년 4분기 '28.4'...주담대 금리 인상에 1년만에 반등

전남지역 주택구입부담지수가 전국에  
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은행  
권의 대출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지  
수는 1년만에 소폭 반등했다.

6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  
해 4분기 전남의 주택구입부담지수(K-  
HAD)는 전 분기(27.7)보다 0.7p 오른  
28.4로, 2024년 4분기(30.6) 이후 3분기  
연속 하락하다가 소폭 상승했지만 전국에  
서 가장 낮은 수치였다.

광주는 50.2로 전국 평균(60.9)을 밑돌  
았다. 또 광역·특별시 중에서는 울산  
(47.5)을 제외하고 가장 낮은 수치였다.

분기마다 산출되는 주택구입부담지수  
는 중위소득 가구가 중위가격 주택을 표  
준대출로 구입한 경우 원리금 상환 부담  
의 정도를 보여준다. 총부채상환비율  
(DTI) 25.7%에 더해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47.9%의 20년 만기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을 표준 대출로 가정했다.

예를 들어 지수가 50.2라는 것은 가구  
당 적정 부담액의 50.2%를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으로 부담하고 있다는 뜻이다. 적  
정 부담액은 소득의 25.7%이므로 주담대

원리금은 소득의 약 13%인 셈이다.

전국의 주택구입부담지수는 2022년 3  
분기 89.3으로, 2004년 통계 작성 후 최고  
치를 기록한 뒤 2024년 2분기(61.1)까지  
7분기 연속 하락했다. 이후 2024년 4분기  
63.7까지 반등했다가 지난해 1~3분기 내  
리 하락했다.

특히 지난해 3분기에는 59.6으로,  
2020년 4분기(57.4) 이후 약 5년 만에 처  
음 60을 밑돌았으나, 4분기에 60.9를 기  
록하며 다시 60을 넘어섰다.

지난해 4분기 은행 대출금리가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해 전체 지수가 상승한 것  
이 지수 상승의 요인으로 분석된다. 한국  
은행이 집계한 예금은행의 신규 주택담보  
대출 금리의 경우 3분기 3.96%에서 4  
분기 4.23%로 올랐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주택구입부담지  
수는 165.1로, 전 분기(155.2)보다 9.9p  
뛰었다. 소득의 42.4%를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쓴 셈이다. 서울 지역 지수  
는 2023년 2분기(165.2) 이후 2년 6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임재용 기자 djawody0316@gwangnam.co.kr

## 농어촌공사, 민간 연계 해외사업 다변화

한국농어촌공사가 '국익 중심 실용의  
교' 기조에 발맞춰 '3대 다변화 전략'을  
추진하며 국제농업협력(ODA) 분야에서  
민간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공사의 '3대 다변화 전략'은 △사업영  
역 다각화 △추진방식 다양화 △지원체계  
다변화다. 이를 통해 국내 기업의 해외 진  
출 위험을 낮추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공사는 기존 농업기반시설 위주였던 사  
업 영역을 어촌, 환경, 안전관리, 공간정  
보 등으로 대폭 넓혔다. 라오스와 인도네

시아의 '댐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키리  
바시 '어촌 개발사업', 라오스 '디지털 농  
지정보 구축'이 대표적이다.

공사는 또 민간의 수요와 강점을 결합  
해 사업을 발굴·기획하고 있다. 키르기스  
스탄 첨단 농산업 단지 개발사업은 초기  
단계부터 민간기업 수요를 연계했다. 필  
리핀에서는 국내 농기계 기업과 함께 농  
기계 단지 조성 사업 발굴을 위한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사업 발굴·기획부터 민간  
수요를 적극 반영하며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고 국제농업협력 추진 효율을  
높이고 있다. 니주=조현찬 기자